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

박사 부교수 박 금 순

1. 서 론

오늘 이 땅위에 일떠선 불패의 사회주의국가와 승승장구하는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위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내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간주하신 좌우명이였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동서고금의 어느 위인도 내세울수 없었던 최상의 경지의 좌우명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거하여 한생을 그토록 빛내일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터전으로 하여 진행되였고 그 전 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나아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이 글에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선생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면서 위대한 사상과 령도,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인민의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한생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2. 본 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치가와 인민은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다.

력사적으로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 되여왔으며 착취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가들은 레외없이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되여왔다.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과 그 통치자들은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저들의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의 난국을 헤쳐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원칙이고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간주하신 신조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모두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주시던 나날에 인민들과 똑같이 생활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무엇보다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한생이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는 력사적위업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일심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에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이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력사의 주체라는것을 힘있게 선언한 인민존중의 위대한 사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주체사상은 곧 이민위천의 사상이었다. 이민위천의 사상에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며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숭고한 애민정신이 담겨져있다.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모아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인민의 지향에 맞게 집행해나가신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정사는 다름아닌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실현하고 꽃피워나가는 성스러운 활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로선과 정책이 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인민의 소박한 생각과 의사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정립해주시였다.

토지개혁법령과 중요산업국유화법령,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면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들은 다 인민들의 소박한 의사와 요구를 담아 제시하신것들이였다. 가릴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인민들을 만나보시고 지하장마당을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제일 깊이 마음쓰신 문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는 한치의 양보도 에누리도 허용할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을 때에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시여 잠을 이루지 못하시며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장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무관심하여 된장을 떨구는 현상에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세심히 관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저택정원에도 여러가지 농작물과 과일나무, 경제식물들을 심으시고 식물들의 생육상태를 관찰하시며 그 재배방법을 연구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꾸신 시험포전에는 벼, 강냉이, 콩, 밀, 보리 등 여러가지 알곡작물과 공예작물, 남새 그리고 집집승먹이풀까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원에 령상모판까지 만드시였으며 물도 대주시고 김도 매주시면서 벼의 생육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5년동안이나 재배시험을 거듭하신 후 벼모는 몇잎 되었을 때 모내기를 하는것이 좋으며 한평에 몇포기씩 심는것이 좋은가, 논물은 어느 정도로 대며 밀거름과 덧거름은 어느때 어떤것으로 얼마나 주는것이 좋은가 하는것을 하나하나 확정하시고 농장원들에게 령상모붓기와 모관리, 덧거름주기와 물대는 방법을 비롯한 영농방법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인민이 놓여있었으며 수령님께서 평소에 간직하고계신 념원은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살게 하려는것이였다. 인민의 행복이자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목적이였고 기쁨이고 락이였으며 안정이고 휴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시였기에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전위조직을 꾸리며 군대를 창건하고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거창한 사업들을 동시에 밀고나가 주체혁명위업의 새 역사를 개척하실수 있었으며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패도 없이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었다.

참으로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에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오게 한 근본비결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다음으로 우리 인민모두를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체현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이였다.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체현자로 되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사람들을 자주적, 창조적본성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지 않고 인간개조사업을 소홀히 할 때에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개조할수 없으며 결국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높이는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가 있다는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고 언제나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은 비로소 력사와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게 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

성을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서 근본적전환을 마련한 세계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 조선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주체적관점과 태도를 철저히 견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주체는 곧 조선혁명이며 주체성을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찍부터 남의 나라, 남의것을 넘겨다보는 사대주의적관점과 기성관념이나 고전의 명제에 기계적으로 매달리는 교조주의적태도를 배격하고 언제나 모든것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우리 인민을 깨우쳐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조국을 일떠세움에 있어서나 3년간의 가렬한 전쟁을 겪고 나라가 완전히 재더미로 된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명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해오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생활에서는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온갖 사대주의적, 교조주의적관점이 극복되고 모든것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사상의식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 모든것을 제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시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주인된 자각과 함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질뿐아니라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지녀야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투철한 자주적인 인간이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드시고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신념을 확고하게 심어주시였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이 과정은 우리 인민이 남에 대한 의존심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확고히 구현해나간 자랑차고 긍지높은 나날들이었다.

통성의 1만t프레스와 락원의 대형산소분리기, 웅장한 5월1일경기장, 불과 5년사이 날바다우에 기적처럼 솟아난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의 놀라움과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조국의 모든 거창한 창조물들은 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일떠선 우리 식의 대기념비들이며 그 하나하나의 창조과정은 곧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용암처럼 분출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장엄한 변혁과정이었다.

우리 인민은 겹쌓이는 엄혹한 시련과 난국을 헤치며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주적인 사상의식이야말로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혁명의 백전백승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우리 인민에게 이 숭고한 사상을 심어주시고 높이 발양시켜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야말로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높은 창조력을 지닌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인민으로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지는 언제나 교육사업을 중시하시고 확고히 선행시키신데서 더욱 뚜렷이 표현되었다.

사람이 지닌 창조력은 자연과 사회의 변화발전과 개조의 합법칙성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과학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체득된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은 모두 우리 인민들 특히는 새 세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기지의 창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시어 평양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일군들과 함께 토의하신 문제는 다름아닌 종합대학창립문제였다.

당시 자주독립국가를 목표로 한 우리 혁명실천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다. 국가도 일떠세워야 했고 경제와 문화도 발전시켜야 하였으며 국방력도 강화하여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모든 사업에 앞서 해방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학원, 중앙당학교,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중앙보안간부학교 등 각 부문의 민족간부들을 키워내기 위한 양성기지를 꾸려놓으시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교육사업이 전시체제로 개편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적들의 무차별폭격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교육사업을 중단없이 계속해나가는 것이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교육방침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세계전쟁사에는 경제체제를 전시체제로 개편한례는 있어도 교육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한례는 있어본적이 없다. 그만큼 준엄한 전시하에서 교육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중단없이 밀고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이 타래쳐오르는 우리 나라에서 부족되는 교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범전문학교와 교원대학이 개교되고 여러 대학들에 교원양성소가 설치되는가 하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차들에 교과서를 실어 운반할데 대한 군사위원회 명령이 하달되는 등 인류교육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련이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전시생산으로 불꽃이 일던 공장에 공장대학이 나와 우리 나라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인재육성기지가 주체40(1951)년 7월 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설되게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의 대학생들까지도 대학으로 소환하는 조치를 취해주신데 이어 불비속을 헤치고 몸소 여러 대학들을 찾아주시며 대학생들을 고무해주시었다.

이렇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도 언제나 중시되어온 교육사업은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기간에 걸쳐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친필이 역사적인 조국통일문건과 함께 김형직사범대학의 현판이었다는 사실은 한평생 새 세대들을 높은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키우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무료의무교육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할것을 결정하던 시기 일부 사람들은 혁명을 한지 수십년이 되는 나라들에서도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있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아 고려하자고 제기한적이 있었다.

적대세력들과 대치하고있는 상태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며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쌓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가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던 당시의 조건에서 이 제기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만큼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실

시한다는것은 참으로 아름찬 일이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은 힘이 좀 들더라도 후대들을 잘 키워놓으면 10년, 20년이 지나서는 좋은 결과가 올것이니 민족의 장래와 번영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제나 이여의 다른 모든것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떠세울수 있지만 인간의 창조적능력이 약화되면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고 나라의 백년대계가 허물어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것처럼 확고하게, 것처럼 일관하게 교육사업을 중시해오신 근본리유가 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교육중시의 근본바탕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우리 인민을 높은 창조력을 지닌 가장 힘 있고 지혜로운 인민으로 키우시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다음으로 보통의 인민들과 다름이 없이 똑같이 생활해오신 위대한 평민의 한생이였다.

력사에 자욱을 남긴 위인들은 대체로 활동능력이나 공적에서뿐아니라 생활방식이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고와 실천이 보통의 사람들과 구별된다는것이 사람들이 품어온 일반적인 표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당과 국가의 최고직분을 지니시고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지만 한생을 너무도 소박하고 검박하게 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항일혁명의 전기간 혈전의 앞장에 서계시는 기수이시였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한번 사령관의령장을 따로 달아보신 일이 없으며 전용침식조건이나 남다른 대우같은것을 허용하신적도 없었다.

항일의 불비속을 헤치시는 나날부터 철칙으로 삼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소박하고 검박한 생활원칙은 위대한 생애의 전과정을 일관하게 관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시여서도, 전화의 그 나날에도 그리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인민들의 식생활을 유족하게 해주시려고 낮에 밤을 이어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밟으시면서 인민들과 똑같은 수수한 식사로 끼니를 에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어 자신의 생신날에조차 사람들이 자신께 별식을 해올리려고 하는것을 막으시며 생일상을 차리지 못하게 하시였다.

전화의 나날 부관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쓰려고 얻어온 닭을 보시고는 그것을 우리가 먹는것보다 병아리를 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며 끝내 되돌려주게 하신 사실은 수령님의 한없이 검박한 인간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쓰시는 모든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수수한것이였고 인민이라면 누구나 흔히 쓰는 보통의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 인민이 피눈물로 가슴을 적시고있던 그 해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서 서거하신 다음 서재에 가보니 《목란》텔레비죤수상기가 놓여있었다고, 수령님께서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그 텔레비죤수상기를 사용하시였다고, 여느 일군들은 《목란》텔레비죤수상기를 새형의 텔레비죤수상기로 바꾸어놓은지 오래되었지만 수령님께서서는 《목란》텔레비죤수상기를 계속 사용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서 사용하시던 실내화도 보통비닐실내화였다고 가슴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의 아들로서 언제나 인민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살아오신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한생이였다.

3. 결 론

만민의 아버지, 인민의 수령을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며 영광이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주석은 밝은 빛으로 인류의 앞길을 비쳐주시고 뜨거운 열로 인간사랑의 화원을 펼치시였으며 거대한 인력으로 만인을 끌어안으신 위인》이시며 《김일성주석의 현지도는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며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신 인민사랑의 로정》이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통신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김일성주석의 전생애에 관통되어있는것은 열렬한 애민의 사상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사랑의 길을 걸으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디아의 《오우선 뉴스 포인트》신문은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찾아가시였다, 조선땅 어디에나 그이의 발자취가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다, 주석께서는 생전에 인민을 보살피는것을 더없는 보람과 락으로 여기시고 현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의 현지도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못한 위대한 인간,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였으며 혁명령도방식이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에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화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더욱 만발하게 가꾸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이민위천, 인민사랑